지역 메아리

고창경찰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과 협업 톡 시간 가져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과 협업 톡의 시간을 가졌다.

청문감사실은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심리적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보다 양질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태석 청문감사관은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많은 지원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한돈협회, 돼지고기 기탁 480가구 저소득 세대 전달

정읍한돈협회가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해 달라며 4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정읍시에 기탁했다고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480가구의 저소득 세대에 전달됐다.

정읍한돈협회(회장 안정용/ 회원 68명)는 매년 명절 때마다 정기적으로 시에 돼지고기를 기탁,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해오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매년 따뜻한 정을 전해오고 있는 정읍한돈협회에 깊은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칠보면민의 날 체육대회 성료

칠보면 번영회가 주최하고 칠보면사무소와 칠보면 기관·단체에서 후원하는 제36회 칠보면민의 날 체육대회가 칠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라인댄스와 하모니카 등 칠보지역 동아리 발표회와 기념식, 체육경기,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봉사와 기부를 몸소 실천하는 칠보제일교회 창동수 목사가 면민의 장을 받았다. 또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장기영(장기영정형외과) 원장이 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밖에도 10년 이상 홀시아버지를 봉양해온 남전마을 이명숙씨가 효부상을 받았다.

배구와 족구 등 8개 종목으로 펼쳐진 체육경기에는 주민들과 기량을 겨루며 화합과 단결을 다졌다.

/정읍=김대환기자

우직한 황소들의 생동감 넘치는 명승부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 26일 개최

시, 16일까지 신청 접수

깊어가는 가을 우직한 한우들이 역동적인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제21회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덕천면 동학혁명기념관 주차장 옆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대회에는 정읍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180여두의 싸움소가 참가해 총상금 7610만원을 두고 3개 체급별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경기는 체급별 대진표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급별 기준은 ▲대백두 851kg 이상 ▲소백두 771kg~850kg ▲대한강 726kg~770kg ▲소한강 671kg~725kg ▲대태백 636kg~670Kg ▲소태백 : 600kg~635kg이다.

우승 상금은 백두급 600만원, 한강급 500만원, 태백급 400만원이다.

2등에서 4등까지는 100만원씩 차감된다.

또 8강, 16강, 32강에 진출하면 각각 100만원, 50만원, 2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10일부터 16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에 등록된 싸움소이다.

체급별(백두, 한강, 태백)로 시청 축산과(☎063.539-6353)나 (사)한국민속소사싸움협회 정읍시지회(☎010-8641-4003)에 신청하면 된다.

행사장에서는 정읍 축산물을 다양하게 시식할 수 있는 정읍축산물축제도 개최된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한우 고기를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한편 지난해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는 전국에서 1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저출산·고령화 사회 발벗고 나서

직원 300여명 대상 이재풍 인구교육 전문강사 초빙,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교육

부안군이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재풍 인구교육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가졌다.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의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안군이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이재풍 인구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저 출산·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풍 강사는 교육에서 저 출산의 덫에 걸린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진단하고 저 출산·고령화 사회 및 인구절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며 우리 나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재풍 강사는 "저 출산 극복의 주체는 가족"이라며 "부부간의 소통과 양육·가사분담, 이를 위한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기존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 의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저 출산·고령화 사회를 벗어나려면 가부장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가사와 양육을 분담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직원 뿐만 아니라 가치관 정립기에 있는 청소년, 더 나아가 전 군민들을 상대로 인식개선 및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의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31일까지 실시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8월 16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표본가구 450가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900명이다.

조사항목은 18개 영역 201개 항목이다.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 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개인위생, 교육 및 경제활동)'이다.

조사 전에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으로 조사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지역보건 의료 계획수립과 수행, 평가에 활용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개인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완료후 일괄 파기 된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호응'

저소득 주민들 생활불편민원 해결

고창군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배, 전기, 상하수도, 난방시설 및 100만원 이하 소규모 집수리 등의 생활불편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고 있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438건(도배114, 전기177, 보일러32, 상하수도60, 집수리51, 기타4)을 해결한 바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560-2382)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 여름내 놔둔 보일러를 틀었지만 고장이 나있고 전등도 어둡거나 안 켜질 때 일반 주민들은 수리공을 부르면 되지만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는 이마저도 큰 비용이 들까봐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 위한 '행복한 반찬마실' 행사

고창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한 반찬마실 행사를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대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2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찬마실 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발굴한 면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어려운 어르신 21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게 위원들이 모여 직접 만든 김치와, 호박전, 깻잎전 등 음식들을 포장해 각 가정에 전달했다.

강순자 민간위원장은 "정성이 담긴 반찬을 우리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남 대산면장은 "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대산면 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복한 반찬마실' 사업과 더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